

체재형주말농장의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최정민* Mark I. Wilson** K. Irene Shim*** Eunseong Jeong****

Keywords

체재형주말농장(Kleingarten), 한국형 커뮤니티가든(K-GC; Korean Garden Community), 멀티해비(multi-habit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t as a preliminary inquiry into the development of a Korean Garden Community (K-GC) model as an element of multi-habitation community. The proposed model i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thirty-four experts' survey and case studies in bo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he main findings are: 1) eclectic model that will be resulted in urban-rural co-development by bridging such values as social welfare of Germany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2) Main developers are suggested to be municipal governments or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whereas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and local farm corporations should be a primary operating body; 3) Enacting a special regulation is to be needed to promote and stabilize the K-GC; and 4) Two different types of K-GC are needed to meet the geo-political and economic needs of each community which are called as Suburb and Countryside type of K-GC. The suburb-type of K-GC focuses on social welfare in a scale developed by public sectors, while countryside-types of K-GC emphasize regional revitalization in a medium-size complex led by citizens and groups.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부교수.

** Professor, School of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Director of Global Programs, School of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PhD student, Dept. of Community, Agriculture, Recreation and Resource Studies, Michigan State University.

차례

- | | |
|----------------------|----------------------|
| 1. 서론 | 3. 모형개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
| 2. 선행연구 고찰 및 체재형주말농장 | 4. 결론 |

1. 서론

우리나라도 멀티해비(테이션)¹ 시대가 점차 펼쳐지고 있다.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도시민이 그들의 생활터전인 도시지역을 정주무대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등 비도시지역을 왕래·활동하면서 전원생활을 하는 주생활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이 도시생활을 접지 않으면서도 전원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농어촌지역에서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진전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정주민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 활력 쇠퇴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한창이다. 예컨대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민의 농어촌 지역으로의 정주나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도농교류를 통해 전략적 상생효과를 추구하려는 시도는 필요불가결한 시대적 요구 사항이다.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농어촌 상황에서 정주민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절대적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교류(population exchange)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주민구만이 아닌 유동인구, 즉 교류인구의 증가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접근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농어촌과의 도농상생을 통한 자립 토대를 놓을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반영운 등, 2008).

체재형주말농장²은 이러한 관점에서 도농상생의 교류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

1 멀티해비(multi-habitation)란, 협의의 의미로는, 도시민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정착하는 ‘정주’와 잠시 머무는 ‘방문’ 사이에 위치하는 ‘반정주’ 형태의 동태적 거주 패턴을 말한다(최정민, 2010a). 원래 다지역거주 또는 복수거주라는 뜻의 멀티해비테이션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멀티해비라 부르며 본고에서도 협의의 멀티해비를 지칭한다.

2 체재형주말농장은 기존의 주말농장에 이용자가 체재할 수 있는 주거나 부대시설을 겸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시설만 추가된 것이 아니라 입지 조건, 개설주체, 이용목적, 이용대상, 이동거리, 임대기간과 형식 등에서 주말농장과 차이를 나타낸다.

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민의 농어촌 지역으로의 귀농이나 귀촌의 접이지대로서 상호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에 갑자기 도시민이 나타나 이주하는 것은 도시민이나 농어촌 지역주민 모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진적 이행과정으로서 상호교류와 경험을 통한 쌍방향적 주생활 패턴이 특히 도시민에게 필요하다. 이미 이웃 일본에서는 멀티해비의 실현의 장으로서 체재형시민농원(일본형 클라인가르텐³⁾이 도시민의 지역사회로의 정착과정에서 접이지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정민, 2010b).

우리나라도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점차 변화되면서 체재형주말농장과 같은 전원생활 체험 및 휴양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체재형주말농장의 경우, 단지 및 시설의 도입과 운영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는 용어나 개념을 들 수 있다. 이미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국내에서 선구적으로 독일과 일본에서 불리는 클라인가르텐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도입하여 ‘경기도 클라인가르텐’으로 도입하였다가 현재는 ‘경기도 체재형주말농장’으로 통칭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도 유사시설을 ‘체재형 가족농원’으로 부르고 있으며, 일부 개인은 텃밭의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임대형 펜션을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하여 매스컴에 알려져 있는가 하면, 심지어 개인용 텃밭을 갖춘 분양단지를 클라인가르텐 단지로 둔갑시켜 홍보하기도 한다. 이들 단지는 시설의 성격, 개설의 주체, 도입 단지의 규모나 시설, 나아가 운영 및 관리체계 등에 있어서 매우 상이한데, 이러한 배경에는 소위 외국의 클라인가르텐 부류의 시설을 개설주체에 따라 부분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이름을 갖다 붙였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클라인가르텐, 또는 체재형주말농장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그동안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도농상생의 관점에서 국외의 클라인가르텐 부류에 착안하고 도시근교 지역의 잠재성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체재형주말농장의 모형 정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본고에서는 ‘한국형 가든 커뮤니티(Korean

3 독일어로 ‘작은 정원’을 뜻하는 Kleingarten은 1850년대 심신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기능으로 시작되어 현재 독일 도시의 중요한 주거환경의 구성요소로, 도시에 집단화되어 작은 집이나 방갈로를 갖추고 있는 도시정원의 형태이다. 일본에서는 체재형시민농원을 클라인가르텐이라 부르고 있으며 명칭은 그대로 가져왔으나 독일과는 달리 주로 일본 대도시의 근거리 지역에 위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지역활성화와 도농교류의 실현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독일의 체재시설(라우베’라고 함)이 움막 형태의 단기 휴게시설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그것은 장기 주거생활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볼 수 있다.

Garden Community)'라 칭하고, 줄여서 이하 'K-GC'⁴로 표기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을 확인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코자 한다. 1)K-GC에 어울리는 명칭과 성격은 무엇인가, 2)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이때 공공지원의 비율과 사업주체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용 관리해야 할 것인가, 3)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떠하며 입지조건 중요도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가, 4)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및 예상 문제점, 운영관리 등에 대한 인식도는 어떠한가.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현장조사 및 담당자 심층인터뷰 조사를 통해 국내외 체재형 주말농장의 현황, 문제점, 시사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앞서 진행된 일련의 현장조사 및 인터뷰조사에 대한 개요를 <부록 1>에 실었는데, 먼저 국내 현장조사는 경기도 체재형주말농장 7곳과 민간기업의 주말농장(클라인가르텐이라고 신문에 광고) 1곳을 방문하였다. 국외 현장조사에서는 도쿄권의 이바라기현 소재 2곳의 체재형시민농원(2009년 2월)과 칸사이권의 효고현 소재 6곳을 방문하였다(2009년 6월). 또한 국내 인터뷰조사는 지자체(경기도청, 양평군청), 학계(경기개발연구원, 농촌진흥청), 마을이장(경기도 체재형주말농장 단지 운영관리인)과 면담하였다(2010년 9월). 일본의 인터뷰조사는 현장조사와 겸해 실시된 것으로, 체재형시민농원 소재 관할 공무원 3곳과 단지 및 운영관리인 2명, 일본 클라인가르텐연구회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지면관계상 본고에서는 조사내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본 연구의 전문가 설문 대상자로는 상기 인터뷰조사 대상자를 포함하여 2010년 10월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 보고서, 저서 등을 참고하여 체재형주말농장 관련 학술 연구자로 20여 명을 추출하였고, 공무원 및 일선 운영관리자(마을이장 등) 등 기타 인력 20여 명을 추출하여 풀(pool)을 구성하였다. 이들 4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2010년 10월 중순에 총 40부를 의뢰·발송하였으나, 최종 회수된 것은 34부였다(85% 회수율). 본고에서는 이들 34부의 유효설문지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설문 및 통계분석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4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K-GC는 일정 규모와 시설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며, 개념상 텃밭(주말농장)에 체재형 주거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갖춘 단지이다. 외국의 클라인가르텐, 경기도의 체재형주말농장, 농촌진흥청의 체재형 가족농원 등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된다.

2. 선행연구 고찰 및 국내 체재형주말농장

2.1. 선행연구 고찰

관련 선행연구는 체재형주말농장 자체에 관한 연구와 체재형주말농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회적 변화의 하나인 멀티해비 관점에서의 연구, 상당수의 체재형주말농장이 위치하는 도시근교라는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체재형주말농장 관점에서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도농상생의 복합생활공간 모델 개발에 이용코자 외국의 체재형주말농장의 사례를 소개한 연구가 있다(박덕병 등, 2005). 관련해서 외국 가족농원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 연구(박덕병 등, 2006), 체재형 가족농원 이용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 연구(박덕병 등a, 2009)가 있다. 아울러, 실제 이들 시설의 도입에 있어서 사업성 확보가 필요하고 마케팅이 중요해 짐에 따라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 방안을 모색한 연구(박덕병 등b, 2009)가 있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대구광역시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재형주말농장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김태균 등, 2009). 또한 시범사업 지구인 전북 순창군에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연구(이민수 등a, 2007), 게다가 소비자 특성에 따른 시장세분화 전략에 기초하여 클라인가르텐의 육성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민수 등b, 2007) 등도 있다. 그런가 하면, 공간이나 시설의 계획적 관점에서 일본 체재형시민농원의 공동시설과 숙박시설인 라우베의 공간구성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박선희, 2010)가 있으며, 이에 앞서 멀티해비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클라인가르텐의 현황실태를 분석한 연구(손혜미 등, 2009)도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벤치마킹되고 있는 일본의 클라인가르텐에 대해 심층적 이론 고찰과 현장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국내 체재형주말농장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최정민, 2010b). 아울러 일본의 시민농원은 우리나라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농촌복합생활공간 조성에 중요한 참고모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김재원, 2007). 최근의 연구로는 실질적으로 기존 국내외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유형의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 조성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김제국 등, 2010).

둘째, 멀티해비 관점에서의 연구를 보면, 멀티해비를 정의하기 위해 이용 주택을 사용빈도와 위상 관계에서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으로 구분하였다(최정민 등, 2010). 이 연구에서는 거점주택(primary home)을 “직장, 생계, 라이프스타일 등에 의해 개인의 주된

주생활이 영위되는 곳으로 사용빈도 및 점유시간, 위상 등에 있어서 중심이 되며, 주민 등록의 주소지가 되는 주택”으로 정의하였고, 활동주택(secondary home)은 “거점주택과 떨어진 곳에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주택”으로 정의하였다. 멀티해비의 관점은 귀농과 귀촌 등을 위해 도농교류를 통한 점진적 이행과정으로서의 개념화된 거주단계가 필요하며, 이를 반정주 또는 멀티해비로 부르고 도입의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셋째, 체재형주말농장과 관련하여 도시주변(peri-urban)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Wilson et al.(2010)은 한국형 PUGC(Peri-urban Garden Community)를 제안하였는데, 여기서 PUGC의 공간 구조적 특성을 자동차로 1~2시간이 소요되며, 장래개발을 위한 저밀도 개발지역으로 도농이 상호 교류하는 교외지로 정의하였다. PUGC는 본고에서 논의하는 체재형주말농장을 포함하는 광의의 가든커뮤니티로서 복지관광(social tourism)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기존의 체재형주말농장에 경제적인 이유로 참여할 수 없는 저소득층 등에게도 PUGC에서 여가활동 및 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PUGC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1>은 상기 국내의 선행연구와 지면관계상 생략한 국외 주요 선행연구를 요약하여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체재형주말농장은 지금까지 주로 도농교류나 귀농·귀촌의 정책이나 단지 및 조경설계의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국외의 경우에는 클라인가르텐(독일), 체재형시민농원(일본), 다차(러시아) 등에 대해 단지 및 시설특성이나 역사, 전개과정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모형 개발 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 이들 나라에서 오랜 과정에 걸쳐 각국의 특성에 맞게 이들 시설이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체재형주말농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모형 개발과 운영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학술적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어 사업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복합시설로서 도시민의 수요와 전원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소위 한국형 체재형주말농장의 모형 개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표 1. 주요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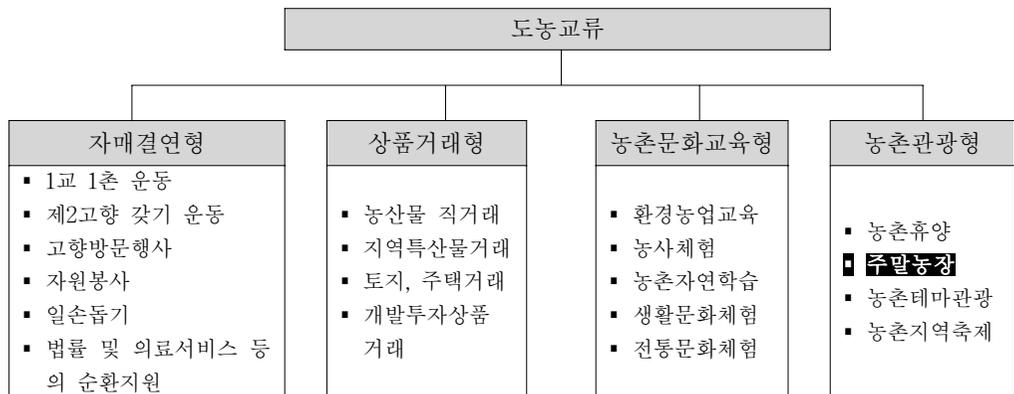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국내 주요 선행 연구	체재형주말농장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현장 및 인터뷰조사 ▪ 설문조사, 컨조인트분석 ▪ 단지조성 설계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체재형주말농장의 소개 및 특징 비교, 시사점 도출(독일, 일본, 러시아 사례로부터) ▪ 일본 체재형시민농원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 ▪ 농촌진흥청의 체재형 가족농원의 한국형 모형 개발 ▪ 경기도의 체재형주말농장 이용자의 이용실태
	라이프스타일 및 멀티해비 현황과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현장 및 인터뷰조사 ▪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해비의 개념 정의 및 도시민의 전원 수요 특성분석 ▪ 멀티해비 라이프스타일의 유형화 및 거주 형태
	도시근교의 개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인터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근교(peri-urban)의 공간구조적 특성 ▪ 도시근교 가든 커뮤니티의 정의와 특성(이론적 연구)
	도농교류, 그린 투어리즘에 의한 농촌 지역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현장 및 인터뷰조사, case study ▪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 컨조인트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선호도 및 참여도와의 인과관계 ▪ 각종 체험관광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 각종 체험관광사업 이용자의 방문형태 및 특성 ▪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국외 주요 선행 연구	일본 시민농원에 대한 이론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고찰 ▪ 학술토론 및 전문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체재형)시민농원의 출현배경과 전개과정 ▪ 시민농원의 기능과 역할, 개선방향(독일식과 비교 등) ▪ 키워드(최적화수법, 공공서비스, 저출산고령화, 도농교류, 환경정책과 환경교육)를 시민농원과 연계하여 고찰
	일본 체재형시민농원의 이용자 실태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현황과악 ▪ 인터뷰조사 ▪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고현 클라인가르텐 이유사노사의 개요, 이용자 실태 ▪ 시민농원과 마을만들기 관계(고베시 마쓰모토 지구) ▪ 치바 뉴타운에 있어서 시민농원의 이용현황과 과제 ▪ 효고현 소재 체재형시민농원의 운영방식과 특성
	독일 클라인가르텐 및 러시아 다차에 대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각종 통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클라인가르텐의 특성과 이용실태 ▪ 독일 클라인가르텐의 적용가능성(남아프리카 등에서) ▪ 러시아 다차의 역사와 전개과정, 사회주의 붕괴 전후에 있어서 토지와 주택(현황과 정책)
본 연구	한국형 체재형주말농장의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현장 및 인터뷰조사 (설문지 개발에 이용) ▪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체재형주말농장(K-GC)의 명칭과 성격 ▪ 개발의 접근방식, 공공지원 비율, 관리주체 ▪ 사업의 기대효과와 입지의 중요도 ▪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및 예상 문제점 등 → 이용자 특성과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시근교형’과 ‘도시 원거리형’의 이원적 형태를 제안

2.2. 체재형주말농장의 위상

국내 체재형주말농장은 도농교류의 일환이라는 측면과 귀농정책의 일환이라는 측면으로 대별하여 그 위상이 자리매김되는 듯하다. 먼저, 도농교류의 측면에서 체재형주말농장의 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농교류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도시와 농촌이 인간적 신뢰감을 가지고 상호대응·호혜의 원칙하에서 양방향으로 인적, 물질, 휴양서비스 및 문화, 정보 등의 교환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공생을 위한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강원발전연구원, 2008). 도농교류의 구성요소는 교류주체(수요자로서의 도시민과 공급자로서의 농업인 및 농촌주민), 교류유인요소(농작업, 농산물, 농촌경관, 전통문화와 지역특산물 등), 교류활동(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적·물질 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송두범, 2010). 이러한 도농교류의 형태로는 크게 자매결연형, 상품거래형, 농촌문화교육형, 농촌관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여기서 농촌관광형은 일종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교류로서 농촌관광휴양 서비스에 대한 농촌주민의 공급과 도시민의 향유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송두범, 2010). 체재형주말농장은 <그림 1>과 같이 농촌관광형 도농교류사업의 일환이며, 주말농장 유형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도농교류의 유형(출처: 송두범, 2010)



한편, 귀농정책의 측면에서 체재형주말농장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귀농관련 정책은 지원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의한 사업으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조성사업’(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과 ‘귀농·귀촌자 지원사업’(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귀

농·귀촌종합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으로는 ‘체재형주말농장(가족농원)사업’(경기도청, 전북 진안순창 등)과 ‘귀농자지원조례제정’(강진, 곡성, 화순, 부여 등)이 있으며, 공공기관에 의한 것으로는 ‘농어촌종합정보포털’(한국농어촌공사)이 있다. 민간기관에 의한 것으로는 ‘생태귀농학교 운영’(전국귀농운동본부), ‘도시민 웰빙농사교육’(전국농업기술자협회), ‘교육과정운영’(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등이 있다. 귀농·귀촌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다루는 체재형주말농장은 도시민을 농산어촌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중간과정 또는 장치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체재형주말농장은 주로 귀농·귀촌의 과정 또는 이의 연장선에서 도농교류라는 일방향적 삶의 측면에서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반해 필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민의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왕래하면서 거주하게 되는 양방향적 삶(주거 유형)의 형태로 체재형주말농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록 현재 체재형주말농장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베이비부머지만 이들 모두가 전원으로 이주, 정착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도시생활에서 유지해온 가족과 지인과의 커뮤니티라든가 의료, 문화시설 등 각종 도시생활의 편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실제 국외를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체재형주말농장이 점차 확산, 홍보되면 도시의 많은 젊은 가구들도 체재형주말농장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2.3. 국내 체재형주말농장의 사례: 경기도 체재형주말농장의 경우

경기도 클라인가르텐(체재형주말농장)은 농업의 산업화를 통해 농촌경제를 부흥시키면서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 발전시키기 위한 도농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국내 최초의 도입 사례이다. 경기도는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가족단위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5도 2촌 생활을 유도하여 주말영농, 휴양,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재를 위한 도시 근교의 주말농장”으로 성격을 규정하였다. 2007년 양평군과 연천군 소재 마을을 필두로 하여 2010년 현재 총 17개 마을에 체재형주말농장 사업을 유치하여 마을당(단지당) 각 5동씩의 체재시설을 설치, 총 85개동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2007년도 사업비의 경우, 2개 마을 건설에 총 3억 9,500만 원(경기도비: 1.6억 원, 시군비: 1.6억 원, 마을부담: 0.75억 원)이 소요되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마을 자체부담은 약 20%, 나머지 80%를 공공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경기도와 시군의 공

공부담 비율을 보면 2007~2008년에는 각각 50%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경기도가 30%(전체 사업비 중에서 24%), 시·군이 70%(전체 사업비 중에서 56%)로 광역지자체의 부담률이 줄고 기초지자체의 부담률이 증가하였다.

기본적인 조성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 소재 지역 중에서 마을 단위로 사업을 신청하고 만약 당첨되면, 일반적으로 마을 공동소유의 부지에 상기의 사업 부담률로 단지를 조성하고, 이후 모든 운영 및 관리는 마을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익금은 전액 마을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각 마을은 어떤 사업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가 개선되어 사업의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유치 희망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우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공동소유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둘째, 마을의 주변 관광자원, 경관 및 여건이 우수하고, 셋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의지 및 추진주체의 사업계획이 충실해야 한다. 다음으로 단지 조성의 개요를 2010년도 기본1형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장의 조성은 경기도의 지침 및 규정에 따라 각 단지에 체재시설 5동, 부지면적 2,475㎡(동당 150평)이며, 1구획은 495㎡로 여기에 텃밭 429㎡과 체재시설 66㎡이 꾸며져 조성된다. 이때 사업비 중에서 공공지원금은 건축시설로 제한되고, 그 외의 농장 조성비 등은 마을자체 부담으로 과수, 유실수, 산채, 약채, 텃밭 등을 조성해야 한다. 이용 대상자는 만 30세 이상 2인 가족 단위 이상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초기에 경기도민만으로 이용자를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의 입주 대상자는 읍·면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서울·수도권의 도시민이다. 임대형으로, 체재시설로의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1년 단위이며,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몇 가지 개선과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첫째, 2007년 첫 공개추첨 당시 10동 모집에 1,400명이 지원하여 평균 140:1의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2009년 최고가 입찰제가 도입된 후로 신청자가 급격히 줄었다. 이는 높은 경쟁률에 따른 입찰가격의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으로 이용자를 한정하게 되었다. 특히 유치마을에 따라서 이용자가 부담해야하는 임대비용은 연간 320만 ~ 700만 원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지역적 환경과 시설정도에 따른 선호도가 반영되어 결국 수익사업으로만 치우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경기도와 시·군에서 마을단위로 사업을 추진하여 단지를 조성한 이후, 일체의 운영관리를 마을 자치로 일임하였고, 실질적으로 마을의 이

5 2010년도 기본2형에서는 체재시설 10동, 농장 3,300㎡(동당 100평 기준)의 규모로, 1구획당 텃밭 264㎡에 체재시설 66㎡가 제시되었다.

장이 운영관리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단지의 운영관리는 이장 등 마을 리더의 노력봉사 성격이어서 동기부여가 적고, 게다가 체계적인 운영관리 매뉴얼 부재와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셋째, 2007년 이후 단지당 평균 5동의 체재시설과 텃밭, 바비큐장 정도만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규모나 시설 측면에서 영세하며 운영관리 등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혜택 배분에 있어 영세할 수밖에 없고, 또한 조성되는 단지 부지도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소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지의 위치나 일정 규모의 부지를 마련하기보다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동소유의 토지나 마을 주민이 제공하는 토지를 찾아 건설하기 때문이며, 이런 이유로 일부 단지는 마을에서 격리되어 위치한 경우도 있다. 일본 체재형시민농원이 단지당 평균 30동의 체재시설과 여기에 관리실, 다목적실, 농기구보관소, 퇴비사, 공동주차장, 심지어 지역특산물 판매소 등을 구비해 놓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경기도의 체재형주말농장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의 ‘체재형 가족농원’ 등이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아직 국내에는 체재형주말농장에 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몇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1)장기적 수요를 고려한 입지 및 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2)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나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3)체계적인 운영관리, 장애인 고려 시설조성 등 섬세한 고려가 부재한 점 등이다.

3. 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3.1. 설문조사의 개요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구성은 <표 2>와 같다. 설문지는 크게 사업일반과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부분과 단지구성이나 시설 등 하드웨어 부분, 피설문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는 체재형주말농장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깊이 관여하였던(또는 하고 있는) 학계와 연구원, 지자체 공무원, 운영 실무자 등으로 한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체재형주말농장에 관한 연구나 또는 개설된 단지가 적기 때문에 다수의 샘플링을 확보하기는 매우 곤란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위해 전문가 명단을 작성한 후 이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설문협조를 의뢰하였으며,

표 2.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소분류	설문내용
명칭	성격	농업, 농원, 농장, 공원
	대상	국민, 시민, 가족
	활동	영농, 체험, 취미, 여가, 전원
	고유 명칭	클라인가르텐, 너나들이, 농장에(愛), 영농팜스테이
성격	현재의 성격	도시민의 여가선용,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도농교류의 상생효과
	미래의 성격	
사업일반	접근방식	독일식(사회복지개념 강조), 일본식(농업활성화, 도농교류 강조), 절충식 또는 혼합형(독일식 + 일본식)
	공공지원	국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자부담()%
사업주체	개설 주체	광역시,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또는 관련협의체, 마을자치 운영위원회 또는 주민협의체, 농어업종사자 또는 농업인, 불특정 개인 또는 법인, 기타
	운영 주체	
이용 형태	이용 시기	연중 자유롭게 이용, 영농이 가능한 봄부터 가을까지, 지역특성 및 운영주체의 결정에 따라, 기타
	이용 시간	24시간 언제든지, 일출 전후~일몰 전후, 관리인의 근무시간에 맞춰, 기타
사업 효과	수요, 공급, 정책측면	수요측면, 공급측면, 정책측면의 각 항목별로 중요도
입지조건	8개 항목	법적, 질, 교통, 인접, 인지, 연계, 사업, 건설 조건의 중요도
예상 문제점	6개 항목	지역 난개발 등 6개 항목에 대한 인식의 정도
법률 제정	법률제정 필요도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 특별법 제정, 기타
	포괄규정	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촉진법, 기타
운영관리 등	8개 항목	사회적 통합모형 고려 등 8개 항목에 대한 인식의 정도
시설 측면*주	시설조성 등	계획규모, 건축동수, 텃밭면적, 건축면적, 단지배치(단지 내 도로와의 관계, 부대 지원시설과의 관계, 텃밭의 배치), 건축유형, 건축재료 및 구조, 부대시설
	하드웨어 10개 항목	
피설문자 특성	4개 항목	성별, 연령, 직업, 관심(경험)기간

*주 본고에서는 시설 측면에서의 분석은 제외함.

표 3.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인원 (명)	비율 (%)	항목	구분	인원 (명)	비율 (%)
성별	남	31	91.2	직업	건설 관련업체	1	2.9
	여	3	8.8		관공서	12	35.3
연령	20-29세 이하	·	·		농업인	3	8.8
	30-39세 이하	6	17.6		기타	1	2.9
	40-49세 이하	13	38.2	(체재형) 주말농장 관여기간	2년 미만	2	5.9
	50-59세 이하	13	38.2		2년 이상 4년 미만	17	50.0
	60대 이상	2	6.0		4년 이상 6년 미만	6	17.6
직업	대학	9	26.5	6년 이상 10년 미만	5	14.7	
	연구소	8	23.5	10년 이상	4	11.8	

설문지는 2010년 10월 21일~11월 9일까지 총 40부를 배포하고, 이 중에서 최종 회수된 34부의 유효 샘플링을 기초로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3>과 같은데, 먼저 성별 분포에서 전체 34명 중 31명이 남성이며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연령에서 20대는 없으며 40~50대가 각각 38%로 전체의 76%를 차지하며 30대가 6명, 60대 이상이 2명이다. 직업에서 관공서 12명(35%), 대학 9명(27%), 연구원 8명(24%), 농업인 3명(9%)이다. 체재형주말농장 과 관련하여 관심이나 경험 또는 관여한 기간을 설문한 결과, 2년 미만의 경우는 6%에 불과하였고 2~4년은 절반이었으며 나머지는 4년 이상으로 상당수의 전문가가 오랫동안 관여하여 왔으므로 본 연구의 설문항목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빈도분석

가. K-GC의 명칭에 대하여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과 일본의 클라인가르텐(체재형 시민농원) 등 외국의 명칭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소위 K-GC의 특성과 가장 부합되는 명칭을 성격, 대상, 활동, 고유 명칭으로 세분하여 선택토록 하였다.

<그림 2.a>와 같이 K-GC의 성격에서 ‘농원’이 절반 이상(59%)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농장(35%)이었으며, 공원에 대한 응답자는 없었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 도시근교에 위치하여 도시민을 위한 공원의 성격에 가까운 점을 상기할 때, K-GC는 공원의 성격으로는 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b>는 K-GC가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는데, 응답을 보면 가족(62%), 시민(24%), 국민(15%)의 순이다. 따라서 2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이용한다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그림 2.c>에서 K-GC에서의 주요활동으로는 여가(42%)와 전원(28%)이 전체의 70%를 구성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체험과 영농, 취미활동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그림 2.d>는 몇 가지 고유한 명칭을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클라인가르텐이 46%로 절반에 가까운 가운데 농장애(23%), 영농팜스테이(18%), 너나들이(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시한 예문 이외에 제안을 희망하는 명칭을 자유롭게 기술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 ‘체험농원, 나들이공원, 근교농원, 농촌사랑시민농원, 농업체험시민농원, 신토불이 시민농원, 체재형농원’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므로 K-GC의 명칭을 가장 빈도수가 높은 항목만

그림 2. K-GC의 명칭에 대한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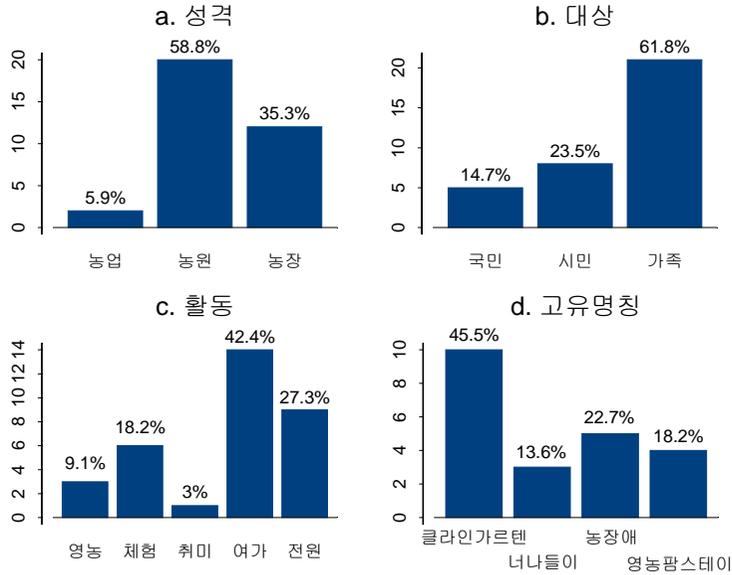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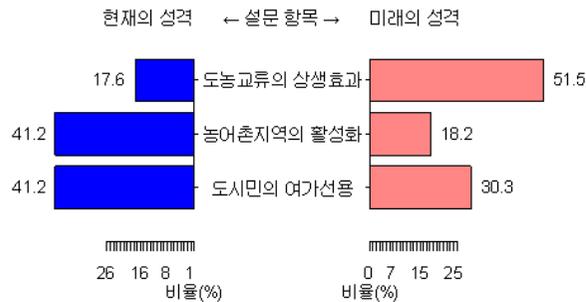


그림 3. K-GC의 현재의 성격 및 향후의 지향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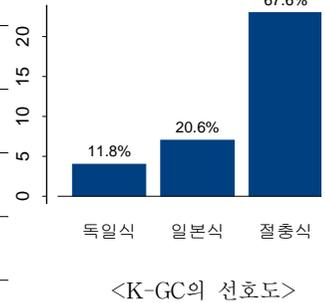
으로 추출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여가, 가족, 농원, 클라인가르텐’이므로, 따라서 ‘여가 가족농원’ 정도로 이해된다.

나. K-GC의 지향성 및 접근방식

현행 국내 체재형주말농장 등은 어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근미래) K-GC는 어디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지향성에 대해 설문하였다. <그림 3>과 같이 현재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도시민의 여가선용이 각각 41%로 같은 비율로 보이고 있는데 비해 도농교류의 상생효과는 18%에 머물렀다. 반면 향후에는

표 4. 외국의 체재형주말농장의 개요 비교 및 K-GC 접근방식에 대한 선호도

구 분		G. 독일 클라인가르텐	J. 일본 체재형시민농원	R. 러시아 다차
개념 입지	접근 방법	도시민의 사회복지	농촌지역의 활성화	식량생산
	입지	도시형, 도시근교형	도시근교형, 체재형	도시근교, 체재형
공공 지원		정부지원 (단지 2개 조성에 약 80억 원)	전체 시설조성비의 60~85% 지원	없음 (개 인 부담)
사업 주체	개설 주체	시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농협, 개인 등	개인
	운영 주체	BDB(독일연방 클 라인가르텐연합회)	기초지자체, 농협, 농업종사자, 개인	개인
이용 형태	이용 시기	3~10월 (겨울 제외)	연중 자유	연중 자유
	시간	오전 10시~일몰	24시	24시



도농교류의 상생효과(52%), 도시민의 여가선용(30%), 농어촌지역의 활성화(18%)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도농교류의 상생효과가 세 배 정도로 지향성이 증가하는데 비해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은 수요측면을,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는 공급측면을, 도농교류의 상생효과는 정책측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향후 K-GC의 지향성은 도시민의 여가선용이라는 수요측면을 고려하면서 도농교류의 상생 효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접근방식에서 비교를 위하여 <표 4>와 같이 독일, 일본, 러시아의 사례를 제시하여 K-GC는 어느 모형에 가까워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즉 어떤 식의 접근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에서는 도시민의 사회복지개념을 강조한 시민의 건강성, 공원 등 필요성의 논리가 강조된 것이며, 일본에서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나 도농교류 등의 개념을 강조한 사업성과 농업 등 경제성의 논리가 강조된 것이다. 설문결과, 그림과 같이 독일과 일본식의 장점을 딴 절충식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일본식(21%), 독일식(12%)의 순을 보이고 있다.

다. 공공지원, 사업주체, 이용형태

공공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각 주체별로 얼마큼을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주체별 부담비율을 자유롭게 기입토록 하였다. 이때 전체 단지 및 시설 조

성비 금액을 100%라고 가정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경기도 체재형주말농장과 일본의 체재형시민농원을 예시하였다.

<그림 4.a>는 각 주체별 부담비율을 박스 형태로 출력하였는데, 그림에서 *는 최소값 및 최대값을, 그리고 •는 중위값(median)을 나타낸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최소 0%를, 자가 부담에서는 최대 100%까지 편차를 보였다. 주체별 평균 비율(괄호는 표준편차)을 살펴보면, 국가는 29%(17.8), 광역지자체는 21.9%(8.3), 기초지자체는 25.7%(9.5), 자부담은 23.7%(20.7)를 보여 대체적으로 1/4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편차를 비교해 보면 자부담과 국가의 경우는 크지만,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편차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담비율을 상기 K-GC의 접근방식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3개 그룹의 응답자로 나누어 그 비율을 비교한 것이 <그림 4.b>이다. 그림에서 독일식의 접근방식을 선택한 사람은 공공부담보다는 자부담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래 독일식에서 강조하는 공공의 적극적 부담에 의한 사회복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 결과는 서로 배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절충식의 경우는 공공의 지원 비율을 가장 높이 매기고 있으며, 일본식은 독일식과 절충식의 중간 정도에 이른다.

한편, K-GC에서 사업의 개설 및 운영주체로는 어디가 적합한지 복수로 선택토록 하였는데, <그림 5>는 이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개설주체로는 시군구, 농어촌공사, 주민협의체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특히 기초지자체인 시군구는 전체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운영주체로는 주민협의체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45.7%) 마을자치의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운영되는 형태를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운영주체로는 영농조합, 시군구의 형태이다. 주민협의체에 의할 경우, 자유롭고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반대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

그림 4. K-GC의 공공지원 부담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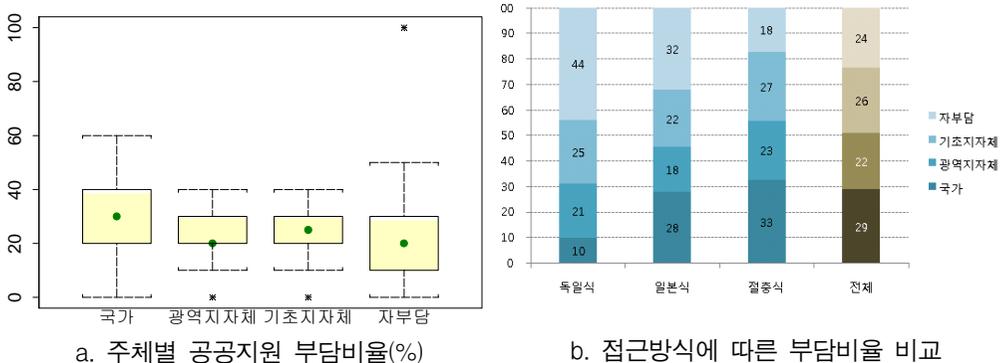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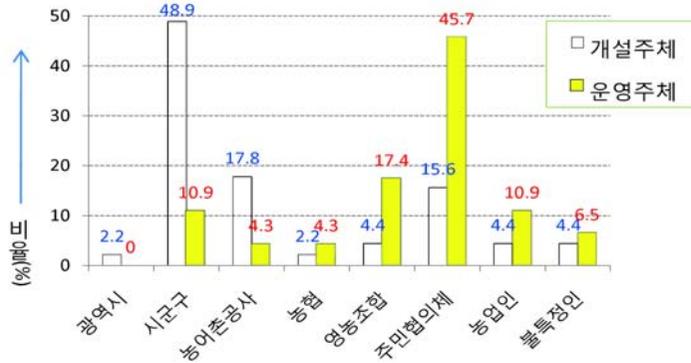


그림 5. K-GC의 개설 및 운영의 사업주체에 대한 빈도



지지 않는 단점도 있다. 일본의 경우 많은 시군구가 직접 개설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주체로도 참여하고 있음을 비취볼 때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필요에 따라 직간접적 또는 부분적 참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빈도순에서 개설주체는 시군구가, 그리고 운영주체로는 주민협의회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경기도의 체재형주말농장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기타 자유의견에는 ‘공사(경기도시공사)’나 ‘중앙부처’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용형태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이용시기에 있어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지역특성 및 운영주체의 결정에 따라’가 약 30%를 보였다. 체재형시설이 계약자의 배타적 이용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중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운영주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겨울철을 제외한 영농가능 시기로 제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80%가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일부는 해가 떠 있는 시기 또는 관리인의 근무시간으로 제한하기를 선호하였다.

표 5. K-GC의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항목	빈도수	비율(%)
이용 시기	1. 연중 자유롭게 이용	21	61.8
	2. 영농이 가능한 봄에서 가을까지	3	8.8
	3. 지역특성 및 운영주체의 결정에 따라	10	29.4
이용 시간	1. 24시간 언제든지	27	79.4
	2. 일출 전후~일몰 전후	4	11.8
	3. 관리인의 근무시간에 맞춰	2	5.9
	4. 기타	1	2.9

라. 사업효과

(1) 빈도분석

K-GC가 정착 및 활성화됨에 따라 기대되는 사업효과를 <표 6>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하여 중요도를 ‘1.전혀 중요치 않다 ~ 5.매우 중요하다’의 5점 척도로 구분하여 물어보았다. 설문결과, 수요측면의 항목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정책 및 공급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항목별로는 ‘A2. 도시민 휴식 및 여가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가 가장 높아 평균 4.44의 중요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A3. 자연적 체험 및 영농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4.24로 높았으며, 반면 B4의 식량생산의 효과와 C2의 인구분산정책적 효과는 각각 3.03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차원척도분석(M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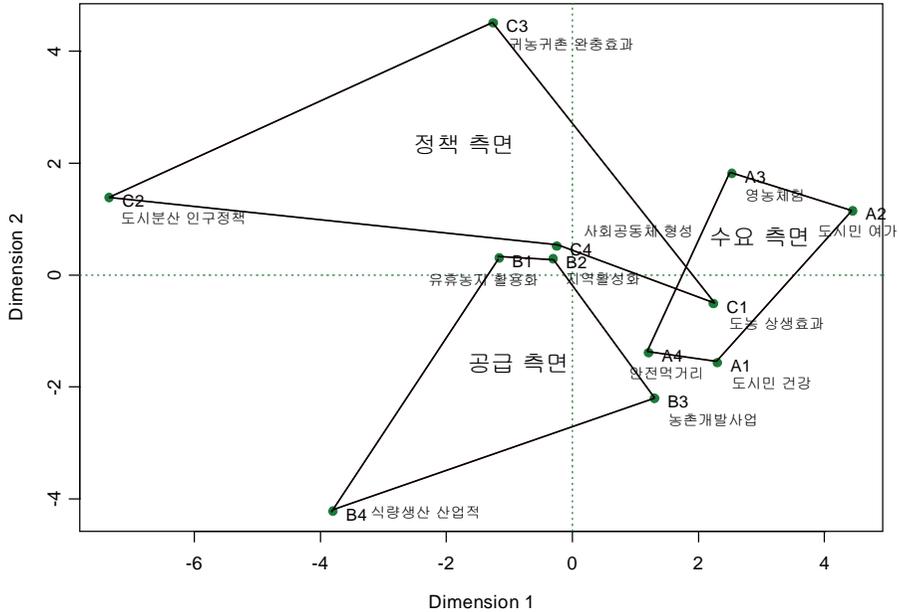
MDS(Multi-Dimensional Scaling)⁶는 개체들을 이용하여 변수들 사이의 거리 또는 비유사성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체(변수)들을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상의 점으로 표현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군집분석이 개체들 간의 비유사성을 이용하여 동일한

표 6. K-GC가 정착 및 활성화됨에 따라 기대되는 사업효과에 대한 중요도 평균

분류	항목	개별 평균	개별 표준편차	분류 평균	분류 표준편차
수요 측면	A1. 도시민 보건 및 건강	3.94	0.92	4.12	0.85
	A2. 도시민 휴식 및 여가활동	4.44	0.82		
	A3. 자연적 체험 및 영농교육	4.24	0.78		
	A4.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섭취	3.88	0.88		
공급 측면	B1. 유희농지 등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활용	3.88	0.98	3.62	0.93
	B2. 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 고용 창출	3.79	0.81		
	B3. 농촌의 잠재력 발휘 및 마을 개발사업	3.76	0.96		
	B4. 식량(먹을거리) 생산의 산업적 효과	3.03	0.97		
정책 측면	C1. 도농교류에 의한 상생효과	4.03	0.87	3.74	0.9
	C2. 도시집중화 분산 및 인구 정책의 일환	3.03	1.09		
	C3. 귀농·귀촌 과정의 완충효과(정주 촉진)	4.00	0.89		
	C4. 사회공동체 형성(교류를 통한 커뮤니티)	3.91	0.75		

6 출처: <http://openlife.tistory.com/category/MIS>

그림 6. MDS에 의한 기대 사업효과와 2차원 배치



그룹들로 분류하고자 하는 반면, **MDS**는 개체들의 비유사성을 이용하여 공간상에 표시함으로써 개체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체들 간의 관계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방법이다. **MDS**분석은 개체들을 대상으로 변수를 측정하는데 변수들은 숫자로 관측하는 구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하는 경우와 명목척도로 측정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구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개체들 사이의 거리(비유사성)를 구한다.

<그림 6>은 2차원 평면에 12개의 설문항목을 배치하고 이를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그리고 정책 측면의 항목을 서로 묶어서 나타낸 것이다. 정책 측면의 항목들이 넓게 분산 분포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 수요 측면은 상대적으로 견해가 모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의 도시민의 건강(A1)과 안전먹거리(A4)는 공급측면에서의 농촌개발사업(B3) 항목과 상호 밀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또한 도농 상생효과(C1)라는 정책 측면과 밀접하게 배치되어 있다. 즉, 전문가들은 도농교류에 의한 상생효과라는 정책적 효과가 도시민의 수요 측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래서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유휴농지의 활성화(B1)와 지역활성화(B2)는 사회공동체 형성(C4)의 사업효과와도 밀접하게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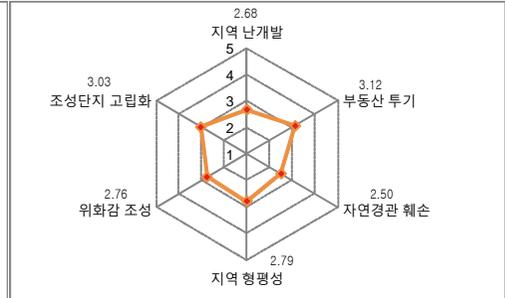
축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림 6>에서 Dimension 1은 좌측의 도시 분산의 인구정책

그림 7. 입지조건에 대한 중요도 평균 득점



※ 중요도: 전혀중요치않다(1) ~ 매우중요하다(5)

그림 8. K-GC 예상 문제점 평균 득점



※ 인식도: 전혀그렇지않다(1) ~ 매우그렇다(5)

과 식량생산의 산업적 효과라는 정책 및 공급 측면과 우측의 도시민 여가와 건강 및 영농체험을 나타내는 수요 측면이 상호 대비되는 의미이다. 반면 Dimension 2는 정책 측면과 공급 측면이 전체적으로 상호 대비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본 통계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다차원척도법에서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척도인 스트레스(STRESS)는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하는데, 0으로 작아질수록 적절한 모형이라고 판단한다. 본 모형에서의 스트레스값은 0.016으로 Kruskal의 스트레스 값의 해석 기준에 비추어보면 적합도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마. 입지조건 및 예상 문제점

K-GC가 활성화되면 각 사업주체마다 단지를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입지할 단지의 중요도를 우선순위로 매겨 단지를 순차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지 조건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칠 요소를 <그림 7>과 같이 8가지 요소로 추출하여 가중치를 비교하여 보았다. 법적 조건은 ‘농어촌지역으로 개발 제약요인이 없는 곳’으로 중요도의 평균 득점은 3.97이다. 마찬가지로 지리 조건은 ‘자연경관 및 주변경관이 우수한 곳’, 교통 조건은 ‘모도시와의 교통 및 도로 사정 우수한 곳’, 인접 조건은 ‘기존 마을과 인접한 지역’, 인지 조건은 ‘농산물 주산지 및 명소로 농산물 직거래가 용이한 곳’, 연계 조건은 ‘도농교류사업 등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 증대’, 사업 조건은 ‘참여주체의 개발의지가 높고 사업시행이 용이한 곳’, 마지막으로 건설 조건은 ‘토목량이 적게 발생하고 주거단지 조성이 양호한 곳’이다. 그림에서 가장 높은 것은 사업 조건으로 평균 득점이 4.24이며, 다음으로 지리조건이 4.18이다. 그 다음으로는 법적 조건, 건설조건, 교통조건 순이다.

한편, K-GC가 활성화되면 몇 가지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림 8>과 같이 여섯 가지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부동산투기’였으며, 그 다음으로 조성단지의 고립화가 지적되었으나, 기타 예상 문제점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예상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현지인과의 교류내용이 필요하며 개발주체의 방치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 전개 후 정책도입이 필요하고, 농지매입과 조성방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바. 법률제정 및 운영관리 등

독일은 ‘클라인가르텐법’이, 일본은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이 이미 마련되어 체계적인 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체재형주말농장이나 본 연구 등에서 제안하는 K-GC 사업을 적극적으로 정착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법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알아보았다.

<표 7>에서 절반 이상이 독일과 일본처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부는 기존의 국내 법령에 포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35%). <표 8>에서는 만약 기존 법률에 포괄하여 규정할 시에는 어느 법률이 적합한가를 물었는데, 도농교류촉진법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고(58.6%), 농어촌정비법 31%, 기타 10%로 응답하였으나 구체적인 법률명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K-GC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전문가 의견을 물었는데, 응답은 ‘그렇다(1), 아니다(0)’의 이항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표 9>에서 높은 항목순으로 살펴보면, 시설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표준규약(운영매뉴얼)에 대해 설문응답자 전원이 각 단지에서 작성·비치하여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에서의 ‘특별수선충당금’처럼 각 조성단지에서도 장기수선을 위해 임대료 중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답하였다(94.1%). 또한 전문 관리인(지역주민, 마을 이장 등)을 두어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88%)과 더불어 이용자 특성 및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시근교형’과 ‘도시원거리형’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건설해야 한다고 답하였다(88%).

표 7. 별도의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항목	빈도	비율(%)
1.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3	8.8
2. 독일과 일본처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19	55.9
3. 기존 국내 관련 법령에서 이를 포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12	35.3

표 8. 포괄 규정 희망 기존법률

항목	빈도	비율(%)
1. 농어촌정비법	9	31.0
2. 도농교류촉진법	17	58.6
3. 기 타	3	10.3

표 9. K-GC 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그렇다:1, 그렇지않다:0의 이항 질문)

설문 항목	비율(%)
1. 도시의 저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이용을 고려한 사회적 통합 모형을 고려해야 한다.	70.6
2. 광역 차원의 마스터플랜(또는 경관계획)을 작성하여 각 조성단지를 체계적으로 건설 및 관리해야 한다.	73.5
3. 현재 조성·운영 중인 국내 체재형주말농장은 텃밭을 갖춘 '장기임대형 펜션'(예컨대, 年단위 전·월세)과 큰 차이가 없다.	52.9
4. 누구나 다(개인/법인, 농업인/비농업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K-GC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0
5. 각 단지에 시설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표준규약(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규약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00
6. 각 단지는 급여를 받는 전문 관리인(지역주민, 마을 이장 등)을 두어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88.2
7. K-한국형PUGC는 이용자 특성 및 교통을 고려하여 '도시근교형'과 '도시원거리형'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건설해야 한다.	88.2
8.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처럼 각 조성단지에서도 체재형 시설의 장기수선을 위하여 임대료 중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94.1

3.3. 대응분석

가. 분석방법의 개요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은 프랑스의 벤제크리(Benzécri)에 의해 1960년대에 개발되어 197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이산형 데이터의 해석방법이다. 통상 분할표(contingency table) 자료에서 행과 열의 범주형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상에 점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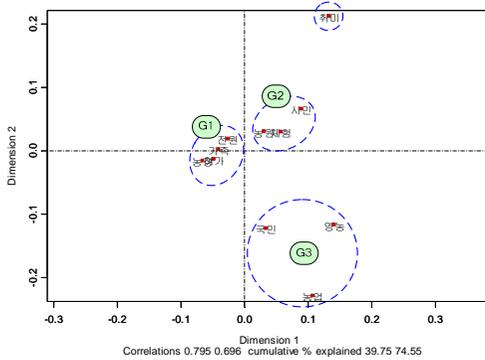
로 나타내어 그들의 관계를 탐구하는 탐색적 다변량 분석기법의 하나이다. 특히 데이터의 분포나 모형의 가설이 사전에 필요 없고, 다만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해함으로써 데이터 구조를 파악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대응분석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한 개의 행과 한 개의 열로 구성되는 2중 분할표를 가지고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2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는 복수의 열로 구성된 변수 간의 대응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대응분석(MCA: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R 및 S언어에서 제공하는 ‘MASS(W. N. Venables and B.D. Ripley, 1999)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나. 명칭의 성격에 대한 대응분석

<그림 9>는 명칭의 성격, 대상, 활동이라는 세 변수⁷를 이용하여 명칭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출력한 대응분석의 그림이다. 출력된 배치관계에서 그림과 같이 개략 3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G1은 {‘농장, 가족, 전원, 여가’}이고, G2는 {‘농원, 시민, 체험’}이며, G3은 {‘농업, 국민, 영농’}이다. 또한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명칭의 활동내용으로 ‘취미’가 격리되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GC에서는 취미의 개념은 동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G1은 ‘농장’ 성격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원’과 ‘여가’ 생활을 함축하는 의미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농장에서 전원과 여가생활을 누리는 여유로운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G2는 ‘농원’ 성격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의 의미가 강하다. 여기에서는 도시민의 전원체험형 농원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G3은 ‘농업’ 성격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농’의 의미이다. 이는 세 그룹 중에서 가장 넓은 의미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에 의한 영농이라는 농업행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G1과 G2는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여 뚜렷한 구별이 힘든 만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농원이나 농장의 성격으로 가족과 시민을 대상으로 여가나 전원을 영위하는 것”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본 대응분석에서 <그림 1.d>의 ‘고유명칭’을 포괄할 수 있으나 이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결손치가 많아 고유명칭은 생략하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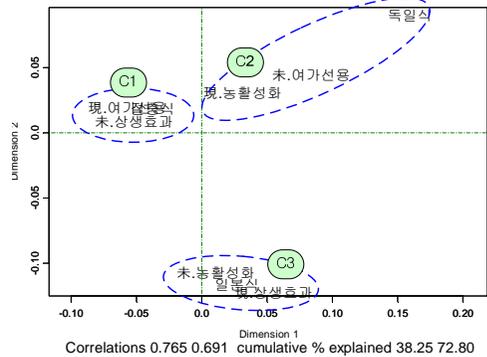
그림 9. 대응분석: K-GC의 명칭



※ 범례

- 명칭의 성격: 농업, 농원, 농장
- 명칭의 대상: 국민, 시민, 가족
- 명칭의 활동내용: 영농, 체험, 취미, 여가, 전원

그림 10. 대응분석: 지향성 및 접근방식



※ 범례

- 현재: 現.여가선용, 現.농활성화, 現.상생효과
- 미래: 未.여가선용, 未.농활성화, 未.상생효과
- 접근방식: 독일식, 일본식, 절충식

(cf. 그림에서 C1은 “現.여가선용, 절충식, 未.상생효과”임)

축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그림 9>의 수평축 Dimension 1은 좌측의 G1과 우측의 G2 및 G3가 상호 대비된다. 좌측에서 G1은 가족 단란 중시의 여가생활이며, 우측의 G2는 시민의 체험농원이며, G3는 국민 영농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 축은 명확히 도시와 농촌의 역할과 의미를 구분하는 축으로 해석된다. 반면 수직축 Dimension 2는 상부의 '취미'와 하부의 '농업'이 극명하게 이격 배치되어 있다. 이 축은 도시민의 취미생활이라는 성격(상부)과 국민의 영농과 농업 성격(하부)을 구분하는 또 다른 도농 관계를 나타내는 축으로 해석된다. 한편 두 개의 축에 의해 설명되는 대응분석의 설명력은 74.5%이다.

다. 지향성과 접근방식에 대한 대응분석

<그림 10>과 같이 ‘현재의 성격(지향성)’, ‘미래의 성격(지향성)’, ‘접근방식’의 세 변수를 도입하여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모형의 목적은 현재의 체재형주말농장의 성격이 미래의 K-GC로 어떻게 무게 중심을 바꿔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K-GC를 바라보는 접근방식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그림에서 개략 세 개의 카테고리 분류된다. C1은 {현재 : 도시민의 여가선용 → 미래 : 도농교류의 상생효과}로 대응하는 배치구조로, 여기서는 독일과 일본의 클라인가르텐을 절충한 ‘절충식’ 형태가 밀접하게 대응하는 구조이다. C2는 {현재 :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 미래 : 도시민의 여가선용}의 대응 구조로 절충식과 독일식에 비교적 밀접하게 대응하고 있

다. C3는 {현재 : 도농교류의 상생효과 → 미래 :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의 구조이다. 여기서는 일본식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그룹과 밀접하게 대응하고 있다.

축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림 10>의 수평축 Dimension 1은 좌측의 C1과 우측의 C2 및 C3가 상호 대비된다. 좌측에서 C1은 절충식인데 비해 우측 C2는 독일식, C3는 일본식의 접근방식에 대응하는 배치관계이다. 따라서 이 축은 명확히 여가선용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축이다. 반면 수직축 Dimension 2는 상부의 ‘독일식’과 하부의 ‘일본식’이 극명하게 이격 배치되어 있다. 이 축은 독일식의 사회복지적 측면(상부)과 일본식의 지역활성화 측면(하부)을 구분하는 접근방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개의 축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72.8%이다.

상기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체재형주말농장의 성격과 미래의 K-GC가 지향해야 할 성격을 교차하여 나타낸 것이 <표 10>이다. 표에서 하이라이트는 대응분석에서의 세 개의 배치 카테고리를 표시한 것으로 화면 중심에 배치한 C1이 전체 33명(결손치 1명)명 중 9명으로 전체 경우의 수에서 2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경우이다. C2는 5명으로 15%를, C3는 6%를 나타낸다.

4. 결론

국내의 현황분석과 전문가설문조사를 바탕으로 K-GC, 소위 한국형 체재형주말농장의 모형개발을 위해 K-GC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표 10. K-GC의 현재 및 미래의 지향성에 대한 교차 테이블

	未.여가선용	未.농활성화	未.상생효과	행의 합
現.여가선용	3 0.23 0.3	1 0.08 0.17	9 0.69 0.53	13 0.39
現.농활성화	5 0.36 0.5	3 0.21 0.5	6 0.43 0.35	14 0.42
現.상생효과	2 0.33 0.2	2 0.33 0.33	2 0.33 0.12	6 0.18
열의 합	10 0.3	6 0.18	17 0.52	33

※ 1. 표의 각 셀에서 첫째 줄은 빈도수, 둘째 줄은 행에 대한 셀의 빈도율, 셋째 줄은 열에 대한 셀의 빈도율
 2. 셀에 하이라이트된 곳은 대응분석에서 밀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

첫째, 명칭이 갖는 성격측면에서 K-GC는 가족을 대상으로 여가와 전원 체험의 농원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며 경우에 따라 고유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클라인가르텐의 이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지만 농장애, 영농팜스테이, 너나들이 등도 제안될 수 있겠다. 주요 역할은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과 보건 및 건강 증진이다. 현재 농어촌지역 활성화와 도시민의 여가선용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향후에는 도농교류의 상생효과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특히 도농교류에 의한 상생효과는 도시민의 수요측면인 보건과 건강, 안전 먹을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둘째, 접근방식을 보면 도시민의 건강과 공원 등의 개념이 강한 독일식 클라인가르텐보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나 도농교류의 의미를 강조하는 일본식 체재형시민농원을 더 선호하였으며, 무엇보다 가장 선호하는 것은 독일식과 일본식의 장점을 모은 절충식에 대한 것으로 선호도가 2/3 이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독일식에서 강조하는 도시민의 수요라는 필요성의 논리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의 지역활성화라는 공급측면의 경제성의 논리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측면에서 도농교류에 의한 상생효과라는 필요성의 논리로 귀결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의 주체로 우선 K-GC의 개설 주체는 기초지자체인 시군구나 농어촌공사 및 주민협의체가 바람직하고, 운영 주체는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영농조합이나 관련 협의체가 가장 바람직하다. 단지 조성 및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용은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자부담별로 평균 1/4(25%)씩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공지원 비율은 지역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흥미로운 것은, 공공부담의 비율은 접근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했는데, 독일식, 일본식, 절충식으로 접근할수록 공공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향후 국가에 의한 정책적 지원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넷째, K-GC의 입지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조건이며 다음이 지리조건이다. 사업조건은 참여주체의 개발의지가 높고 사업이 용이한 곳이어야 하며, 지리조건은 자연경관과 주변경관이 우수한 곳이어야 한다. 교통 접근성이나 개발제한 요인이 없는 법적조건, 단지조성이 양호한 건설조건 등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한편, 향후 체재형주말농장의 예상 문제점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투기이며, 조성단지의 고립화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광역차원의 마스터플랜을 통해 계획적 단지조성이 되어 지역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주민과 시설 이용자 간의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가 배양되어, 도농교류의 상생효과가 갖는 긍정적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사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체재형주말농장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독일과 일

본처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특별법의 의미는 체재형주말농장에 대한 근거법령을 마련함과 동시에 단지조성 추진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특별법 제정 없이 기존 국내 법령에 포괄하여 규정할 시에는 농어촌정비법보다는 도농교류촉진법에서 명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섯째, 개설 단지는 시설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표준규약(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규약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설문응답자 전원이 요구함). 또한 아파트단지에서의 특별수선충당금처럼 조성단지에서도 시설의 장기수선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중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내용을 요약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국형 체재형주말농장인 K-GC를 제안한다. 즉, K-GC는 이용자 특성 및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교형’과 ‘도시원거리형’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특성상 체재형주말농장은 도시 내에는(도시형) 부적합하다. 따라서 도시근교형은 교통접근성 측면에서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독일식의 사회복지 개념을 결합한 사회통합의 개념(social tourism)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말하자면, 필요성의 논리라는 관점에서 사회 취약계층도 포용할 수 있는 비교적 대규모단지 형태의 모습을 띤다. 반면, 도시원거리형은 일본식의 도농교류나 지역활성화 측면이 강한 체재형시민농원과 가까운 것이다. 말하자면, 사업성의 논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부담가능한 도시민의 전원수요를 충족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모형이다. 단지마다 30~50호 가량의 체재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단지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론적 접근은 전술한 전문가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절충식 접근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도시근교형은 국가나 광역지자체에 의한 공공주도형 사업성격에 가깝고, 도시원거리형은 기초지자체나 협의체 등 민간주도형의 사업성격에 가깝다.

본 연구의 과제는 향후 국내외의 사례를 더 수집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문가 의견을 비롯하여 운용 및 이용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한국형 모형의 사업 모형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과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대상자인 전문가 샘플링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구통계학적 속성별 선호도 차이 등 유의성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사업추진에 중요한 사업비용과 관리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결여되었는데, 이는 향후의 과제이다.

참고 문헌

- 강원발전연구원. 2008.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세타가야구(世田谷)민 건강촌 조성사업·시책을 중심으로.” 「정책브리프」 36.
- 김재원. 2007. “外國의 滯在形週末農場事例를 통한 韓國式 滯在形週末農場 形態에 대한 提案.”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제국 등. 2010.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김태균 등. 2009. “체재형 주말농장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 대구광역시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36(3): 795-809.
- 박덕병 등. 2005. 「외국의 가족농원」.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박덕병 등. 2006. “외국 가족농원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일본, 독일,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2(2): 75-85.
- 박덕병, 손은호, 김경희a. 2009. “체재형 가족농원 이용자의 요구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1): 33-49.
- 박덕병, 윤유식, 이민수b. 2009.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농촌 체재형 가족농원 관광상품개발.” 「관광학연구」 33(1): 303-325.
- 박선희. 2010. “일본 시민농원의 공동시설 및 라우베 공간구성 특성.”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2(2): 49-59.
- 반영운, 정재호, 백종인. 2008. “생태마을 조성을 통한 농촌 어메니티 향상 방안.” 「농촌계획」 14(4): 33-45.
- 손혜미, 최정민. 2009. “복수 거주 개념에서 살펴본 체재형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의 실태와 과제.”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7-221.
- 송두범. 2010. “도시-농산어촌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충청남도 및 공주시 5도2촌 시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37-1161.
- 이민수, 박덕병, 황대용a. 2007. “체재형 가족농원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농촌관광연구」 14(2): 65-83.
- 이민수, 박덕병, 채종현b. 2007.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체재형 가족농원 육성방안 - 시장세분화 접근.” 「농촌계획」 13(2): 93-105.
- 최정민a. 2010. “멀티헤비테이션의 발전 가능성 및 수요특성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1): 89-101.
- 최정민, 강진만, 손혜미. 2010. “멀티헤비테이션의 유형화 및 관련 주생활 라이프스타일 현황조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3): 41-52.
- 최정민b. 2010. “일본 클라인가르텐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가족농원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6(3): 51-66.
- Venables W.N. and Ripley B.D. 1997. Modern Applied Statistics with S-Plus. Springer.
- Wilson, M.I., Shim, K.I., Jeong, E., & Choi, J. 2010. “Approaches to development of a peri-urban garden community: South Korea as a case.” *Emerging Issues along Urban-Rural*

Interface, Atlanta, GA, April 13, 2010.

원고 접수일: 2010년 12월 13일
원고 심사일: 2010년 12월 20일
심사 완료일: 2011년 4월 15일

※부록 : 체재형주말농장 관련 현장조사 및 인터뷰조사 내용

구분		현장 및 인터뷰 대상자(연월)	현장사진 및 인터뷰 조사 내용		
현 장 조 사	국 내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2008.9)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2009.4)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2010.9)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2010.9) 양평군 단월면 봉산리(2010.9)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2010.9) 여주군 점동면 도리(2010.9) 		
		충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면 본평리 아리지주말농장(2008.9) 		
	일 본	도쿄권 (茨城縣)	<ul style="list-style-type: none"> KL* 야치요(八千代)(2009.2) KL 카사마(笠間)(2009.2) 		
		칸사이권 (兵庫縣)	<ul style="list-style-type: none"> KL 이유노사토(伊由の郷)(2009.6) KL 이사리가미(岩座神)(2009.6) KL 부라이벤 오오야(ブライベンオオヤ)(2009.6) KL 후로이텐 야찌요(フロイデン八千代)(2009.6) 		
인 터 뷰 조 사	국 내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박사)(2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재형주말농장 일반(수요, 타사업과의 비교, 적정규모, 주말농장의 현황) 국외 사례 현황(독일 및 일본) 기타(실태 및 문제점, 법률, 발전방향 등) 	
		경기개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박사)(2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연구(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 	
		경기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정책과(2008.12) 농업정책과(2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체재형주말농장의 현황(모집방법, 입주자 요구사항, 설문조사 현황, 임대비) 기타(문제점 및 개선방안, 홍보) 	
		양평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과 농촌관광(2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체재형주말농장의 현황(조현리, 산음2리, 봉상2리) 기타(단지조성 과정, 군의 역할, 평가, 개선방안 등) 	

구분		현장 및 인터뷰 대상자(연월)	현장사진 및 인터뷰 조사 내용
일본	마을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현리 이장(2010.9) 산음2리 이장(2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의 이용현황 및 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및 지원요청 사항
	카사마시 (笠間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담당공무원 1명 및 클라인 가르텐 카사마 관리인(20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개요(조성 경위, 조성금, 실태) 시설과 이용현황(농원 및 각종 부대시설) 시민농원 응모현황과 이주 지역 정착과정 이용자 대상 이벤트 활동 및 프로그램
	야찌요초 (八千代町 役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담당공무원 2명(20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개요 및 이용 현황 시민농원 응모현황과 이주 지역 정착과정 이용자 대상 이벤트 활동 및 프로그램
	아사고시 (朝來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담당공무원 2명 및 클라인 가르텐 이유노사또 현지 관리인(200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원 조성의 배경과 지역적 특성 시민농원 조성 관련법률 이용실태(이용료, 이용자특성, 선정방법) 이용 규정 및 운영관리 현황
	타카초 (多可町役 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담당공무원 2명(2009.6) KL 후로이텐 야찌요 관리인 KL 부라이벤 오오야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구성 및 특징 이용현황과 운영관리 이용자 만족도 및 애로사항
	일본시민농 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클라인가르텐연구회 사무국장(○○○○씨)(20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체재형시민농원의 현황 운영관리(운영주체/방식, 수선충당금 등) 과제 및 개선방안(지속성 방안, 관련 법률) 국외 사례(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등)

※ KL : 클라인가르텐